

리비아 카다피 ‘제2의 후세인’ 되나

걸프전 이후 이라크 상황과 흡사...정권교체 여부따라 변수

서방 연합군이 공습을 시작한 리비아 상황이 1991년 사담 후세인 정권을 상대로 한 걸프전 이후 상황과 비슷해 리비아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가 ‘제2의 사담 후세인’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리비아 공습 초기 상황은 후세인 축출에 나서지 않고 비행금지구역(no-fly zone)만 운용했던 당시 이라크 상황과 닮았다. 후세인은 걸프전 이후 12년 넘게 더 집권했다. 1991년 이라크에서는 북쪽의 쿠르

드계와 남쪽의 시아파가 걸프전 이후 후세인 정권이 약화된 틈을 타 동시에 봉기를 일으켰다. 리비아에서는 카다피 정권 아래 억압받았던 동부 뱅가지를 중심으로 한 부족들이 반(反)정부 시위에 나섰다. 후세인이 그랬듯 카다피도 이들을 무력 진압했다.

바그다드-쿠르드의 대립 구도가 현재 리비아의 트리폴리-뱅가지 대치와 유사하다. 리비아 정부군이 공군력을 동원해 저항세력을 공격하는 양상도 이라크군 헬기가 쿠르드 반군

을 목표물로 조직적인 공격을 가한 것과 닮았다.

카다피의 전략·전술과 양측의 군사적 우열, 그리고 국제사회의 정세 판단과 그에 따른 대응 방식으로 인해 리비아 시나리오가 1991년 이라크를 닮아가고 있다고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CSM)는 최근 분석했다.

런던퀸메리대학과 런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소속 이라크 전문가인 토비 도지 박사는 “국제사회는 후세인이 축출될 것으로 보고, 특별

한 개입 없이 이라크를 고립시키기만 하면 나머지는 국민이 해 낼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번 서방 연합군의 리비아 군사작전을 승인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973호 역시 정권 교체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 리비아가 걸프전 이후 이라크가 될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전문가들은 연합군 공격의 최종 목표를 정권 교체에 둘 것인지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안보리 결의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2차 공격을 주도한 영국 정부 내에서는 ‘카다피도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연합뉴스



미국 공군들이 22일 나토 공군기지 인근 이탈리아 마니아고 상공 C-17 수송기에서 강하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군 4차 공습... 카다피 주요지휘관 사망

나토, 對리비아 무기 금수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서 22일 밤 거대한 폭발음이 들린 가운데, 대공포가 격렬하게 발사됐다고 AP와 AFP 통신이 전했다.

트리폴리에서는 이날 밤 8시를 넘긴 시각에 두차례 폭발음이 난 뒤 10여분 간 대공포탄이 밤 하늘을 수놓는 광경이 현지의 외신기자들에게 목격됐다.

미국과 영국 등을 주축으로 한 연합군의 4차 공습이 시작됐음을 짐작

케 하는 이 폭발음이 정확히 어느 쪽에서 발생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서방 연합군은 지난 19일 이후 매일 밤 리비아의 대공방어망을 파괴하기 위한 공습 작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군은 전날 밤에는 트리폴리 외곽의 해군 기지와 카다피의 고향인 시르테 공항 등을 폭격했으며, 이 과정에서 미 공군 F-15 전투기 1대가 리비아 북동부 상공에서 기계 고장을 일으켜 추락했으나 조종사 2명은 모두 안전하게 탈출해 구조됐다.

아랍 위성채널인 알-자지라 방송은 연합군의 3차 공습으로 카다피 여단의 주요 지휘관 중 1명인 후세인 엘-와르파리가 숨졌다고 전했다. 카다피의 6남이자 그의 최정예 부대인 제32여단을 지휘하는 카미스가 사망했다는 설도 나돌고 있으나 리비아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한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대 리비아 군사개입의 일환으로 리비아에 대한 무기 수출금지를 이행하고자 해상 봉쇄에 나선다. /연합뉴스

美공군 지휘 女장군 화제

다국적군의 리비아 공습에 참여한 미국 공군을 지휘하는 사령관이 여성 장군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00~2008년 워싱턴포스트 군사전문기자로 일한 토머스 릭스는 22일(현지시간) 포린폴리시 웹사이트에 올린 블로그에서 독일 랑슈타인 공군기지의 미군 아프리카사령부 산하 제17공군 사령관인 마거릿 우드워드 소장을 소개했다.

우드워드 소장은 애리조나주립대에서 항공우주 공학을 전공한 후 1983년(對) 리비아 군사개입의 일환으로 리비아에 대한 무기 수출금지를 이행하고자 해상 봉쇄에 나선다. /연합뉴스

IAEA “日원전 방사선 유출 계속”

“근원 판단 못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관련해 방사선 유출이 계속되고 있으나 격납용기 손상 여부 등 유출 근원을 판단할 정보가 없다고 22일(현지시간) 우려를 나타냈다.

제임스 라이언스 핵시설안전 책임자는 이날 IAEA 본부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원전의 방사선 유출이 계속되고 있으나 “문제는 방사선이 정확히 어디서 나오고 있느냐, 격납용기에서나 사용 후 연료봉 저장 수조에서나이다. 거기 올라가서 실제

로 뒤져볼 능력이 없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라이언스 책임자는 해당 원전 원자로 1~3호기의 “격납용기에 큰 구멍이나 과도한(방사선) 유출이 없다고 판단할만한 충분한 정보가 없다”며 격납용기가 완전히 온전한지 여부를 IAEA와 일본 당국이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 당국이 관련 데이터를 은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일본 측 자신도 데이터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앤드루 선임고문은 말했다.

앤드루 선임고문은 “후쿠시마 원

전에서 일부 진전이 계속 있으나 전체적인 상황은 여전히 매우 심각하다”며 각 원자로, 특히 4호기의 사용 후 연료봉 저장 수조가 가장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무토 사카에 도쿄전력 부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원전 원자로 1호기의 노심 온도가 정상 온도보다 80~90℃가량 높은 약 380~390℃에 이르고 있다며 “온도를 조금 낮추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원자로들이 충분히 안정됐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한반도 6.5 규모 강진 가능성”

지질자원연구 지헌철 박사

한반도가 지질학적 위치 및 구조 조상 일본·중국 등 이웃나라보다 강진 가능성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규모 6.5 이상 지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헌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는 23일 서울 테헤란로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한반도 지진과 원자력 안전’ 주제 포럼에서 “한반

도의 역사적 지진 기록이나 지체 구조 등으로 미뤄 규모 6.5 이상의 지진도 가능하다”며 “그러나 7.0 이상 지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한반도는 지질학적으로 중국 탄루 단층대와 여러 관 경계가 겹쳐 있는 일본 열도 사이에 놓여있다. 한반도 좌우의 이 두 지역은 매우 취약한 지질구조로 이번 일본 대지진을 비롯해 강진이 빈발하는 곳이다.

한반도는 현재 인도양판이 유라시아판을 미는 힘과,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필리핀판 등을 미는 힘을 동서 방향에서 동시에 받고 있다.

한반도 강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은 과거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승정원일기는 1643년 7월 24~25일 울산 동쪽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 땅에 구멍이 났고 이후 물이 솟아 높이 모래가 쌓인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각 학자 및 분석 기관에 따라서는 이 지진의 강도를 7~9까지 평가하고 있다. 고려사에도 불국사와 석가탑 등이 지진으로 붕괴해 다시 지었다(중수)는 기록이 있다. /연합뉴스

정부, 美와 별도 대북 식량지원 검토

영·유아 취약계층 대상...옥수수·콩 등 수만

정부는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 실사단이 금주말 북한 식량평가 보고서를 발표할 경우 미국의 지원 움직임과는 별도로 식량과 의약품 포함 대북 인도주의 지원 여부를 본격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정치적 의미를 갖는 과거의 대규모 지원 방식은 불가하며 구체적인 지원품목과 방식을 놓고는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역할분담’을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수의 정부 소식통은 23일 “국제기구 실사단의 평가보고서가 나올 경우 미국만이 지원을 검토하는게 아니라 정 부로서도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다음 달부터는 그동안 보류

해온 대북 지원사업을 조심스럽게 다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 오마바 행정부가 국제기구 실사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북 식량지원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내부 검토절차가 상 당기간 소요되는 미국보다 우리 정부의 지원이 선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는 북한의 취약계층을 겨냥해 옥수수와 콩 등을 중심으로 수만의 식량과 의약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북측에 옥수수 1만t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이 터지면서 지원이 보류된 상태이다. /연합뉴스

인구 30만이상 지자체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앞으로 인구 3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SOC(사회간접자본) 시설과 대규모 개발 사업도 의무적으로 경관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출 방안’을 마련해 23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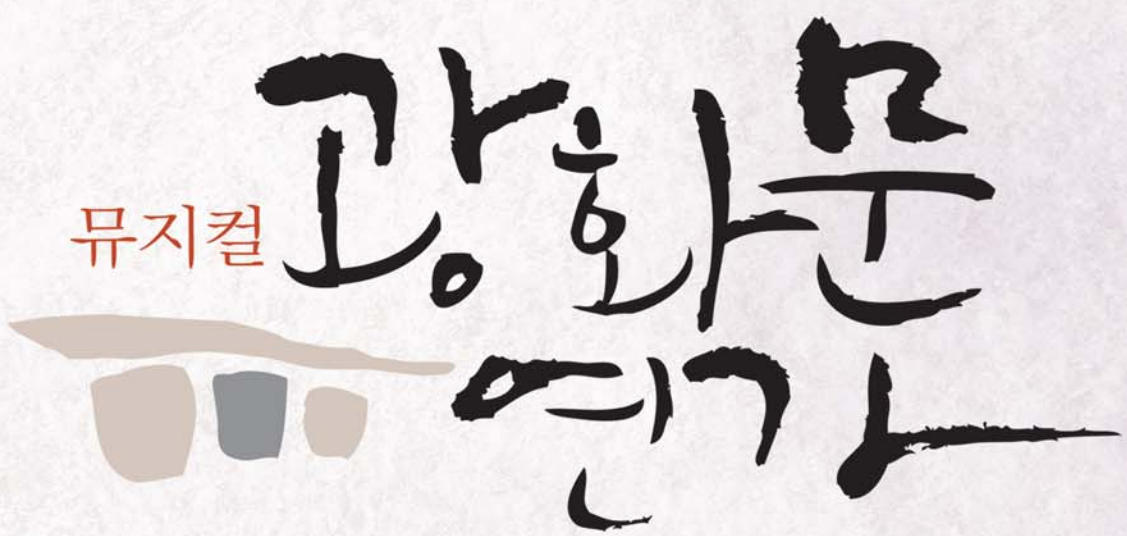
국토부는 체계적인 국토경관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관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현재는 이 조항이 임의사항이어서 별도의 구속력이 없었다.

또 도로·하천 등 SOC 시설과 대규모 개발 사업을 경관 심의 대상에 포함해 기본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를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창사 59주년 기념

www.musicalyounga.com

CAST 송창의, 윤도현, 리 사, 임병근, 허 규



2011년 4월 22일(금)~24일(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 주 최 | 광주일보 KBC
| 주 관 | KBC미디어콤플 · 영무엔터테인먼트

| 공연시간 | 22(금) 오후 8시 · 23(토) 오후 3시 · 7시 30분 · 24(일) 오후 3시
| 티켓가격 | VIP석 110,000원 · R석 99,000원 · S석 88,000원 · A석 66,000원 · B석 55,000원

| 예 매 처 | 인터파크 · 쇼티켓
| 공연문의 | 062-220-0541

